

성 유대절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좌희선 (보노사)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손영모 (가브리엘)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 토요일	오전 6시	고 해 성 사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주 일 ☞ 미사 전 30분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 미사 전 15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자 영성체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유 아 세 례
			관 련 흔 배

① **본당 ‘생활 속 거리두기’**

• 날씨가 무더워 지는 요즘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내 마스크 착용 필수 (말할 때 벗지 않기)
- 출입기록 필히 작성 (개인필기구 지참)
- 사람간의 충분한 거리 두기
- 발열 체크 및 손 세정제 사용
- 음식물 섭취 금지 (다과, 음료 포함)

② **미사 시간 안내**

• 6월 2일(화)부터 저녁 7시 미사가 재개됩니다. 단체 활동 및 교육, 모임 등의 시작 활동 일시는 단체장들에게 문의바랍니다.
 • 초·중·고등부 미사는 아직 재개하지 않으며 추후 공지합니다.
 • 주일미사에 참례 하실 수 없는 코로나 유증상자, 노약자 분들은 가톨릭 평화방송 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의 대승으로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③ **새 예비신자 모집**

• 입교식: 6월 14일(주일) 오후 12시 20분
 ※ 6월 14일(주일)이후에는 교리 수업 진행을 위해 예비신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미리 접수 바랍니다.

④ **‘성모의 달’ 꽃 봉헌**

• 성모의 달을 맞아 제대 꽃을 봉헌 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교적 관리 안내**

• 원활한 교적 관리를 위하여 교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가족 변경 등 수정사항이 있으면 사무실로 오셔서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⑥ **교무금 납부 안내 (3,241세대 중 981세대 납부, 30%)**

•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무금을 납부해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무금은 교회유지를 위해 교우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바치는 헌금입니다. 교우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⑦ **춘천교구 후원 미사**

• 일시: 6월 1일(월) 오전 10시, 2층 대성전

⑧ **성모님께 바치는 교황 성하의 기도**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가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광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⑨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안내**

• 코로나 19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는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5가지 활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컵 사용 습관을 기릅니다.
2. 빨대나 일회용품 사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최대한 줄입니다.
4. 비닐봉지가 아닌 장바구니를 사용합니다.
5.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성가번호 입 당: 147 예물준비: 성가정성가, 210 성 체: 493, 182 파 견: 청담동본당가

화 답 송



주님 당신숨을 보내시 - 어 온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23)

감사, 영성생활의 제 1악장

영성생활의 첫 번째 움직임

저자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시작하는 첫 번째 영적 움직임을 ‘감사의 태도’라고 강조한다. 감사의 마음과 태도에서 다른 영적 움직임도 생겨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신앙생활의 바탕이며 배경이 된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감사야말로 모든 덕행의 어머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여러 미덕을 갖추었다 해도 감사의 자세가 결핍되면 그러한 미덕들을 실천하기 어렵거나 표리부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감사의 태도를 계속 지니고 노년기를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않다. 몸이 늙어감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성미가 나빠지기도 하고, 주위에서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 불만을 표현하다보면 괴팍한 노인네가 되기 십상이다. 반면에 젊은 세대에게 노년 세대의 존재 자체가 짜증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괴팍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정서적으로 훨씬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질병에 덜 걸리고, 긴장이나 불안, 우울을 경험하는 빈도도 더 낮으며, 자신들의 몸을 더 잘 돌본다. 그리고 숙면을 취하는 빈도도 더 높다.” (218쪽)

감사는 영성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것



저자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영성 훈련의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감사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장들을 소개한다. 가족, 손자 손녀와의 대화, 자신의 과거 직업, 감사를 실천하는 자선, 기억 속에 감사한 일들, 허물없이 만나는 친구들, 우리 곁에서 도움을 주는 이들..., 모든 일상의 삶 안에 주어진 환경과 새로운 모험들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견지할 때 결과로 행복은 주어진다. 괴팍한 늙은이가 되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한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열 명의 나병환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돌아온 한 사람처럼 되기 위해 일상의 체험을 감사의 훈련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영성 훈련의 결

과는 기도로 나타난다. 저자는 어린 시절 수녀님에게 배운 기도를 소개한다. “그 수녀님은 기도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셋째는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는 것이다.”(251-252쪽) 어릴 때에는 크리스마스 때 장난감을 받게 해달라고, 좋아하는 축구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기도에 더 맞들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정말 우리 삶은 감사의 기도로 넘쳐난다. 비와 햇빛, 이슬과 물기 어린 정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을 새로운 날로 재창조하시는”(233쪽) 하느님을 찬미하게 된다.

2020. 05. 31

청담동 성당 주임신부 김민수 이나시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물		교무금 납부 현황	
주님 승천 대축일	7,399,200원	총 세대수	3,241세대
홍보주일 2차헌금	3,370,820원	총 납부세대	981세대
교무금	24,590,000원	지난주 납부세대	17세대
성소후원금 (5건)	140,000원	총 납부율 (%)	30.3%
감사 헌금 (05/20~05/26)			
원 스테파노	100,000원	정 크리스티나	100,000원
정 캐더린	200,000원	정 요셉	100,000원
곽 올리안나	100,000원	유 에디타	300,000원
		조 레지나	200,000원
		서 스테파니아	50,000원
		합계: 12,750,000원	
꽃 봉헌 (05/20~05/26)			
정 라파엘	100,000원	김 요한	50,000원
고 요안나	50,000원	윤 로사	100,000원
유 제노베파, 이 토마스아퀴나스	30,000원	정 스테파노	50,000원
		정 미카엘라	100,000원
		심 안드레아	50,000원
		합계: 630,000원	